

 보 도 참 고 자 료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담당과	산업기술개발과
	담당자	강성천 과 장 최세나 사무관
	전화번호	2110-5183
인터넷 : www.mocie.go.kr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 R&D의 전주기적 경제성평가 실시 -

- ◆ '06년부터 산업자원부는 정부최초로 기술개발(R&D)과제를 선정·지원할 때,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 '06년부터 중기거점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험 적용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장관 李熙範)는 내년부터 R&D 자금 지원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 6월 23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음

□ R&D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의 실시는,

- 경제적 성과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집중·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R&D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지난 6년간('99~'04년) 정부 총 R&D투자의 연평균 증가율(13.8%)은 일반 예산 증가율(6.1%)을 크게 상회

□ 구체적으로, '06년부터 산업자원부는 R&D 과제에 기획 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토록 의무화하고,
- 금년 하반기 중 지정될 예정인 경제성 평가전문기관이 이에 대한 경제성·사업성을 검증하고, 별도의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경제성 평가보고서」 형식으로 평가위원회에 제시토록 하는 한편,
- 평가위원회에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위원은 경제성만을, 기술성 평가위원은 기술성만을 전담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종료평가시에는 기술성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이를 특허 경비지원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기술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3~5년) 동안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실제적인 경제성을 평가를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관련 인프라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시 보유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 기존의 경제성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검증, 개선하여 시장의 신뢰가 축적된 경제성 평가모델을 확립하며, 기술·시장 정보 D/B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 기술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CTO, 벤처기업인, VC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의 교수요원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임
- 아울러, R&D 기획·평가관리비를 '04년도 1.5%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내실화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선도적으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부처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며,

- 향후 다른 부처의 R&D사업에도 경제성평가가 확산될 것을 기대함

【첨 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추진방안

【첨 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추진방안

2005. 6. 23

산 업 자 원 부

요 약

□ 추진 배경

- 산업기술발전 패러다임이 기술추격형에서 혁신선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R&D의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이 중요

패러다임	기술/제품 주기	개발비용	타당성
기술추격형	성장기/성숙기	소·중규모 투자	선진국에서 검증
혁신선도형	태동기/초기성장기	대규모 투자	불확실

- R&D 예산증가에 따른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해 정부 R&D사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더욱 높일 필요
- R&D의 경제적 성과제고 및 사업화(commercialization) 촉진을 위해 경제성에 입각한 과제 선별기능 강화 필요

* 산자부 기술개발성공률: 93%('90~'02), 사업화성공률: 32.0%('87~'97)

□ 경제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기획 및 과제 선정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분석지표 미흡, 짧은 기획 기간 등으로 형식적 수준
- 종료평가 결과가 “성공”, “실패”로만 구분되고 사업화 여부를 추적·평가하는 시스템도 부재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추진방안

- ① 「기획→선정→종료→사업화」의 R&D주기에 걸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촉진

< 기획 및 선정단계 >

- R&D기획시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 공고시기를 앞당기고 기획기간을 대폭 연장
* 산자부 중장기 R&D 연구기획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경제성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R&D 과제의 경제성을 심층 분석한 후 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기술평가기관 현황: 공공 평가기관 42개, 민간 평가기관 10개
- 평가위원회에 경제성 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R&D 과제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
* 현행 경제성평가 비중: 연구기획후 과제선정시 25%

< 종료·사업화단계 >

- 과제 종료시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를 촉진
 - 종료후 3~5년간 사업화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실질적인 경제성을 평가하고, ITEP에 관련DB 구축
- ② 경제성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평가 인프라 확충
- 기존 경제성 평가모델의 검증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가 축적된 경제성 평가모델 확립
 - 기술 및 시장정보 D/B구축을 통해 기술평가자 등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수립
 - 기획·평가관리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내실화
* 현행 산자부 총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04년): 1.5%

□ '06년에 중기거점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적용대상을 확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외국의 R&D 경제성 평가 사례	2
III. 경제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4
IV.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추진방안	6
1. 기본 방향	6
2. R&D 단계별 경제성 평가 추진방안	7
(1) 기획단계	7
(2) 선정단계	8
(3) 종료 및 사업화단계	9
3. 경제성 평가 인프라 확충	11
V. 시범평가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12
<참고> 기술평가기관 현황	13

I. 추진배경

- ①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업기술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추세에 따라 R&D의 사전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의 중요성이 제고

패러다임	기술/제품 주기	개발비용*	타당성** (feasibility)
기술추격형 (catch-up)	성장기/성숙기	소·중규모 투자	선진국에서 검증
혁신선도형 (front-runner)	태동기/초기성장기	대규모 투자	불확실

* 산자부 R&D 과제당 평균규모 : ('90) 1.25억원 → ('04) 2.82억원

**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과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을 포괄

- ② 예산증가에 따른 책임성(accountability)제고 차원에서 정부 R&D사업의 경제적 기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최근 6년간('99~'04) 정부 총 R&D 투자는 연 평균 13.8% 증가하여 일반예산 증가율(6.1%)을 크게 상회
- 정부 R&D사업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을 통해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경제성 평가 강화 필요

- ③ 정부 R&D사업의 사업화(commercialization)를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에 입각한 과제 선별기능 강화 필요

- 정부 R&D사업의 기술적 성공률은 평균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은 10~30%에 불과한 실정

부처	사업명	기술개발 성공률	사업화성공률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93%('90~'02)	32.0%('87~'97)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93%('98~'00)	13.0%('82~'97)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6%('93~'97)	17.0%('93~'97)

II. 외국의 R&D 경제성 평가 사례

- ◇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시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
- ◇ R&D과제수행을 타당성 분석단계(Phase I)와 본격적 기술개발단계(Phase II)로 구분하고 타당성 분석에 기술 개발 못지않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

I 미국(상무성, ATP 프로그램)

*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 사업화에 초점을 둔 선도기술프로그램

- 연구기획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 기술성 및 경제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집중 실시

* 기획평가관리비는 총 사업비 대비 12%,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에 약 10개월 소요

- 과제 선정시 기술성 평가위원회(Technical Panel)와 사업성 평가위원회(Business Panel)를 분리·평가하며 각각 50% 반영
 - 기술성평가는 기술의 혁신성, 성공가능성 및 위험도 등 기술적 우월성을 평가
 - 경제성평가는 국가차원의 경제적 효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개발된 기술의 수익창출 경로 등을 집중 평가

<미 상무성 ATP의 지원과제 선정 절차>

	평가내용	특징
1단계	사전검토	· 지원요건 미충족 과제 10% 탈락
2단계	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 기술성패널과 경제성패널을 별도 분리하여 운영 · 양 패널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
3단계	최종 사업자 및 과제 선정	· 2단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집중 검토 실시

② 대만(경제부, 민간기술서비스산업 육성사업 및 SBIR프로그램)

- 민간기업의 정부 R&D과제 신청시, 민간기술서비스 회사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 민간기술서비스회사는 'R&D서비스 및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집중 검토
 - * 현재 대만에는 약 500여개의 기술서비스회사가 활동 중이고, 정부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갱신
- '98년에 도입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인 SBIR프로그램은 기획단계(Phase I)와 R&D수행단계(Phase II)로 구분 시행
 - Phase I (6개월)에서는 본격적으로 Phase II(R&D과제 수행, 2년)착수 전에 기술사업화 타당성 분석을 실시
 - 중소기업 스스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기술서비스회사를 활용

Ⅲ. 경제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기획 및 과제 평가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 ◇ 전문 경제성 평가기관, 인력, 평가모델 및 D/B 등 평가 인프라도 크게 미흡한 실정

① 경제성 평가 시스템 측면

기획단계

- 연구기획(중대형과제) 또는 사업계획서(소형과제) 작성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경제성 지표 미흡, 짧은 기획기간 등으로 부실
-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이나, 산업연관효과를 이용한 과학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위주로 분석
- * 산자부 중장기 R&D 연구기획기간: 2개월(성장동력, 중기거점 등)

선정 평가단계

- 기술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술성 중심의 평가에 치우치는 경향
- * 평가위원회(10인)에 경제전문가 1~2인 포함
- * 연구기획평가(과제선정) 배점 → 기술성 : 경제성 = 75 : 25

종료 및 추적 평가단계

- 최종 평가 결과가 "성공", "실패"로만 구분되어,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지 않음
-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까지 연결되는지 여부를 추적 평가하는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

② 경제성 평가 인프라 측면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 인력

- 기술의 사업성·시장성을 분석하는 기술평가기관이 법령상 42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적고 시장의 신뢰성도 낮은 실정
 - 기술평가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10여개에 불과
 - * 연간 100건 이상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보, 기술거래소 등 6개에 불과
- 평가기관소속의 전담인력은 400여명 수준이며, 민간의 경우 아직 시장규모가 작아 우수인력의 유입에는 한계
 - * 잠재적 활용인력: 공공 · 민간평가기관, 창투사인력, 회계사, 변리사 등

경제성 평가모델 · D/B

- KISTI, 기술거래소 등이 R&D 경제성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 · 시장정보를 구축 중이나 아직 모델의 신뢰성이 낮고 정보의 갱신 등에 문제점
 - * KISTI: “R&D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시스템(STAR시스템)”을 ‘03년 개발
 - * 기술거래소: IT·BT·기계·소재 등 4종의 기술가치평가 모델 및 온라인기술 평가시스템(OK-Value) 개발을 완료하고 NTB를 통한 기술 · 시장정보 구축 중

R&D 기획 · 평가예산

-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연구기획 및 평가비용으로 충실한 사전연구기획 및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실정
 - * 총사업비대비 기획평가관리비(‘04): 美 ATP (12%), 韓 차세대성장동력(1.5%)
 - * 전담기관 사업비대비 평가관리비(‘04): 美 NSF (5%), 獨VDI (9.3%), 韓IEP (1.3%)

IV.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 R&D 「기획 → 선정 → 종료 → 사업화」의 각 단계별로 경제성 분석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
- 「평가전문기관」이 각 단계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경제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 평가위원회내 경제성전문가와 기술성전문가의 평가영역을 분리하고 경제성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
- R&D 사업 유형별로 경제성 평가의 내용을 차별화

	중장기·대형 R&D	단기·소형 R&D
평가내용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개별기업 관점에서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	공통핵심, 신기술실용화, TBI 사업 등

◇ 평가 전문기관 및 인력, D/B 등 경제성 평가 인프라를 확충

◇ 우선적으로 '06년에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2. R&D 단계별 경제성 평가 추진방안

(1) 기획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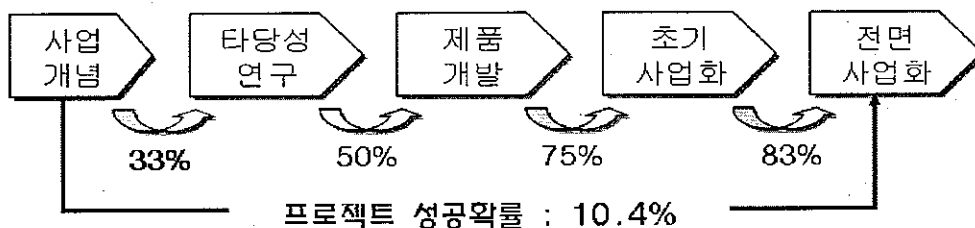
□ R&D 기획시 철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계획수립을 유도

- 중장기 R&D 과제는 연구기획서에 기술의 사회경제적
과급효과* 및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토록 의무화

* 현재는 연구기획시 추정 부가가치, 무역수지 개선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작성토록 하나, 앞으로는 지표를 세분화하고 세부지표별로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모델을 제시토록 의무화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적 관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의 비용을 산출토록
하여 정부지원에 따른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타당성 분석시 고려

- 단기 R&D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자료: "3000 Raw Ideas = 1 Commercial Success", G.A. Stevens and J. Bur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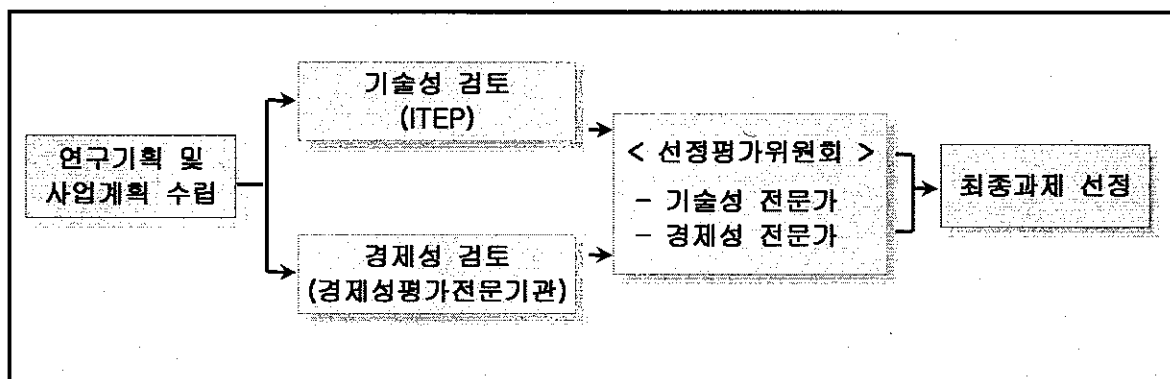
□ 내실 있는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시기를
앞당기고 연구기획 기간을 대폭 연장

- 사업공고를 전년도 11월에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연구기획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美 ATP 프로그램은 연구기획기간을 약 10개월 부여

(2) 선정 단계

- 평가전문기관이 R&D과제의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
 - 공공 및 민간 평가기관 중 공개경쟁을 거쳐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일정기간 경제성 평가를 전담
 - * 평가인력 및 관련 D/B구축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경제성 평가실적을 점검하여 평가의 전문성 강화
 - 평가전문기관은 연구기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경제성·사업성을 검증하고, 별도의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제시
 - * 단기 R&D 과제는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1차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에 경제성 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위원은 경제성만을, 기술성 평가위원은 기술성만을 전담 평가토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 경제성 평가위원은 벤처캐피탈리스트, CEO·CTO,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3~4명 정도로 구성



□ 기존의 경제성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경제성평가 배점을 증가시켜 경제성평가의 내실을 강화

○ 중장기 R&D과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지표를 개발·적용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

* 현행 과제선정시 기술성 : 경제성 = 75 : 25

○ 단기 R&D과제는 개별기업 관점에서의 사업성지표를 개발·적용하고 경제성평가 비중의 확대 검토

(3) 종료 및 사업화 단계

□ 종료평가지에는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사업화를 촉진

○ 평가전문기관이 기술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과제를 평가

○ 기술개발의 “성공”, “실패” 판정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이를 특허경비지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 “성공”과제의 경우, 기술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등급을 세분화

□ 기술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3~5년) 동안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실제적인 경제성을 평가

○ 추적평가를 통해 정부 R&D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R&D사업의 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과제수행자들의 추적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정부사업 참여 등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 R&D 단계별 경제성 평가시스템 】

단 계	경제성 평가 내용	주체
기획단계	○ 연구기획서(중장기) 및 사업계획서(단기)의 정량적 경제성분석을 강화 ⇒ 현재의 분석지표를 구체화·계량화하고 분석 후, 근거자료 제시를 의무화	연구기획자 (중장기 R&D), 사업신청자 (단기 R&D)
선정단계	○ 연구기획서 및 사업계획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객관적/체계적 검증 및 추가분석 ⇒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	경제성평가 전문기관
	○ 기술성평가 및 경제성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한 후 합산하여 과제선정 ⇒ 경제성평가의 배점을 대폭 확대	평가위원회
종료단계	○ R&D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기술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 분석 ⇒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	경제성평가 전문기관
	○ “성공”, “실패”이외에 기술가치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등급 부여	평가위원회
사업화단계	○ 종료 후 일정기간(3~5년) 동안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제적인 경제성 평가	경제성평가 전문기관, ITEP

3. 경제성 평가 인프라 확충

☐ 경제성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육성

-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시 보유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여 전문기관의 대형화 유도
- 기술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CTO, 벤처기업인, VC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의 교수요원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활용

☐ 기존의 경제성 평가모델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구조화된(Structured) 평가모델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유도

* 美 NSF에서 개발한 기술평가 모델(PIES)의 경우 초기 평가비용이 수천불에 달했으나, 모델의 안정화 이후 캐나다에서는 185불 수준으로 하락

- 기술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의 기술·시장 정보를 기술평가자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R&D 기획·평가관리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기획·평가관리비를 '04년도 1.5%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내실화

V. 시범 평가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 '06년도에 경제성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경제성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

◇ 시범평가 대상과제

- 중장기대형 R&D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신규 및 종료과제)
 - 5년 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개발 분야로 기술의 경제성이 핵심
- 단기소형 R&D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 및 종료과제)
 - 2~3년의 단기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이 핵심

- '06년도 중기거점 및 공통핵심 신규과제의 연구기획 및 사업공고를 조기에 실시하여 경제성 분석 및 평가기간을 확보

- 연구기획 대상과제 선정 : '05. 10월
 - * '05년 연구기획대상과제 선정 : '04. 12월
- 연구기획 착수 및 사업공고 : '05. 11월
 - * '06년 중기거점 신규과제 연구기획 : '05. 11월 ~ '06. 2월(4개월)
- 평가전문기관의 경제성 평가 실시: '06. 3월
- 최종과제 선정 : '06. 4월

- 시범평가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금년 9월중 선정

- * 선정된 전문기관은 평가지표 및 평가모델 등 세부적인 경제성 평가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계획을 수립

- 시범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경제성 평가 적용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참고> 기술평가기관 현황

부처	관련법률	지정유형	기관명 (수)
산자부	기술이전 촉진법	기술거래소	기술거래소 (1)
		기술평가 전문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보건산 업연구진흥원 (8)
	산기반조성 에관한법률	기술담보 가치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중기청	벤처기업 육성에관 한특별 조치법	기술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 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벤처기업 평가	국방품질관리소, 기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 진공,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KISTI, 디자인진흥원, 문화관광 정책연구원, 문화컨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원, 전자거래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KISTEP (16)
특허청	발명진흥법	기술성평가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KT&G중앙연구원 해양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에너 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소, 화학연구원, 전기연구 원, 산업기술시험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자재시험 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 평가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업기 술원, 원사직물시험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기유화 시험연구원, 기술거래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은행, 전자통신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 국과학기술원 (29)
		사업성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원, 과학기술연구원, 기술거래소, 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발명진흥회, 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12)
재정부	기술신용 보증기금법	기술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1)
과기부	기술개발 촉진법	기술력평가	기술이전촉진법과 동일 (9)
환경부	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 관한법률	환경기술 평가	환경관리공단 (1)
합 계			42개 (중복제외)